

# 魯齋 許衡(1209~1281)의 생애와 철학사상

李 遠 碩\*

- 
- |                     |            |
|---------------------|------------|
| 1. 들어가며             | 4. 허형의 출처관 |
| 2. 허형의 유년시절과 학문적 배경 | 5. 나오며     |
| 3. 허형의 주자학 입문       |            |
- 

## 1. 머리말

南冥 曹植(1501~1572)은 25세 무렵 허형의 글을 읽고 깨달음을 얻어 주자학으로 사상적 전환을 하게 된다.<sup>1)</sup> 또한 남명의 사상적 선배라고 할 만한 김굉필 등은 『小學』을 매우 중시한다. 중국철학사상 『小學』을 실제 국가교육기관의 커리큘럼으로 채택하여 그 이념에 따라 교육했던 이는 아마도 허형이 최초일 것이다. 한편 조선 중기 조선의 유학자들은 허형이 원나라 정부를 위해 일했던 것이 과연 정당했냐 여부를 놓고 논쟁을 벌인다.<sup>2)</sup> 그보다 훨씬 이

\* 필자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조교

- 1) “余初受氣甚薄，又無師友之規，唯以傲物爲高，非但於人有所傲於世，亦有所傲，其見富貴貨利，蔑如草泥。忽矯舉浩嘯攘臂，尙若有遺世之象焉。斯豈敦厚周信朴實底氣乎。日趨於小人之域而不自知也。…輒竦然自省愧縮自喪。深嘆所學之無類，幾枉了一世，初不知人倫日用事，皆自本分中來也。…”(『南冥集(壬戌本)』卷2, 『書圭菴所贈大學册衣下』)
- 2) 퇴계 이황은 허형의 출처에 대해서 긍정적 입장을 갖는다. “邱濬(1421~1495)등의 무리들이 모두 허형이元到 벼슬한 일은 잘못이라고 비난하였다. 그러나 이때는 오랑캐가 계속 중국을 통치하여 天理人倫과 문물제도가 거의 다 소멸되었다. 하늘이 허형을 낳은 것은 우연이 아닌 듯하다. 허형이 만일 자신만을 깨끗이 보전하고, 세상을 멀리하는데 과감하였다면 天理를 누가 밝혔을 것이며, 인륜을 누가 바로 잡을 것인가? 온 세상이 결국 오랑캐가 되고 아무도 구제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나의 관점에서 본다면, 허형이 세상을 위해 나온 일은 義理에 어긋나지 않는 듯하다.…”(“先生曰, ‘邱瓊山輩皆事元之非. 但此時夷猶主華, 天理民彝典章文物絕滅殆盡, 天之所生魯齋, 似非偶然. 魯齋若獨善而果於亡世, 則天理誰明, 民彝誰正, 天下其從爲左, 而莫之救矣. 以愚觀之, 魯齋之爲世而出, 似不害義 …’” 『退溪先生言行錄』 권5, 1쪽 『論人物: 金誠一錄』(『退溪全書』 4-230) 그러나 율곡 이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주자 이후 眞德秀(1178-1255)와 허형이 儒者로서 세상에 명성이 있지만, 출처의 大節을 살펴볼 때 문제 삼을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통의 정맥에] 함부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明代의 名臣들 가운데 理學에 마음을 쏟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도통의 正脈과 결부시킬 만한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한 함부로 수록하지 않았습니다.”(“新安朱子以後, 有眞德秀許衡, 以儒名世, 而考其出

른 고려 시대에는 고려 유학자들이 원나라로 유학을 가서 허형이 설립했던 국학에 입학을 하여 교육을 받았다.<sup>3)</sup> 따라서 허형의 철학사상을 규명할 경우 우리의 조선유학사 이해는 더욱 깊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렇듯 우리의 전통철학을 위해서는 연구되어야 할 중요한물이건만 우리나라 학계는 물론, 중국 학계에서도 노재 허형 뿐 아니라 원대 유학사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연구를 하지 않았다. 각 철학사를 보면 송대와 명대 부분은 자세한 반면 원대는 그 사이에 매우 작은 분량으로 서술되어 있을 뿐이다. 이는 원대 철학은 송대 철학보다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단지 송대 철학을 이해하기에 급급했던 이들의 철학이라는 편견이 깔려있지 않은지 의심케 한다. 그러나 철학사상이 시대의 산물이라는 고전적 명제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원대 철학이라는 토양이 없었다면 명대의 새로운 철학사상이 배태되었을 리 만무하다. 송대와 명대를 잇는 ‘가교’ 역할로서의 원대 철학이 갖는 의미도 중요하겠지만, 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원대에 주자학이 관학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이다. 남송 말기에서부터 주희의 주석서가 과거시험 교재로 채택되긴 했지만 국가교육기관에서 정식 커리큘럼으로 채택되고 또 교육기관의 교육이념이 주자학이 되었던 것은 원나라가 최초이다.<sup>4)</sup> 그렇다면 원나라라는

處大節，似有可議，故不敢收載。至於皇朝名臣，亦多潛心理學者，第未見可接道統正脈者，故亦不敢錄。”(『栗谷全書』권26, 34쪽, 「聖學集要」 권28.) 이상은 李倬珪, 「宋時烈의 性理學說 研究」, 서울대박사학위논문, 1996. 44~45면에서 재인용했다. 우암 송시열은 율곡의 입장에 따르되 허형을 더욱 준엄하게 비판한다. (이봉규, 위의 글, 49면)

- 3) 李穡(1328~1396)은 “추로의 학문을 강학함에 이르러 세상을 어지럽히는 불교와 도교를 내쫓았던 것이 周子和 程子の 공이다. 송나라가 망해 버리자 그 설이 북쪽으로 전파되었다. 노재 허선생은 그 학문을 이용하여 세조의 중흥 지원의 통치를 도왔다. 모두 그 학문으로부터 나왔던 것이다.”(“…至於講明鄒魯之學，黜二氏詔萬世，周程之功也，宋社旣屋，其說北流，魯齋許先生，用其學，相世祖，中統至元之治，胥此焉出。”『牧隱集』卷九)라고 말하여, 송나라 성리학이 원나라의 허형으로 이어졌을 뿐더러 국가통치에 북무했다고 말한다. 李源明은 “元の 許衡을 포함한 도통의식은 鄭道傳에서도 찾지는데, 즉 자신의 학문적 師友와 연원을 許衡 李穡 鄭夢周·李崇仁 鄭道傳으로 파악하고 있다.(鄭道傳, 「陶隱文集序」, 『三峯集』 卷三)”고 한다. (李源明, 『高麗時代性理學受容研究』, 서울: 국학자료원, 1997, 215면) 한편, 李齊賢(1287~1367)이 허형의 묘 앞에서 지은 시를 보면 그 역시 허형을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 “(宋의 명재상 韓琦의 字)처럼 순수한 덕 지녔으니/우뚝하게 뛰어나 풍운의 시대를 제도하였도다./ 강관(絳侯 周勃과 灌嬰으로써 漢沛公의 신하, 武人)/벽옹에 공이 초상 그리려 했는데/泉路久修文 지하에 들어가 수문랑이 되었구나/인상여(蔭相如, 전국시대 趙의 賢相)를 사모하여 늦게 태어남을 한탄하며/쓸쓸한 무덤 앞에서 단식만 하네.”(『魏公懷粹德 魏公/偃起際風雲/絳灌雖同列/鄧雍方繪像/慕藺嗟生晚/荒涼馬鬣墳』, 『益齋亂藁』 卷二, 「許文貞公魯齋墓」)申千湜, 『高麗後期 性理學의 受容과 教育思想』, 서울: 명지대학교출판부, 1998에서 재인용.
- 4) 주자학이 국교화 하는 과정에 대해, James T. C. Liu(劉子健), “How did a Neo-Confucianism School become the state orthodoxy?”, *Philosophy East and West* 23 no. 4(1973)를 참고할 것. 또한 금원 교체기의 道學에 대해서는 姚大力 「金末元初理學在北方的傳播」, 『元史論叢』 二, 1983을 참고할 것. Wing-tsit Chan(陳榮捷), “Chu Hsi and Yüan Neo-Confucianism”, *Yüan Thought-Chinese Thought and Religion Under the Mongols*, ed by Hok-lam Chan and Wm. Theodore de Bary, New York:

동아시아 역사상 미증유의 대제국이 과연 어떠한 이유로 주자학을 대제국의 이념으로 채택했는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sup>5)</sup> 중국철학사를 개관해 보면 대제국의 이념이 되었던 것은 대부분 범가적인 것 아니면 범가와 도가가 혼합된 것이었다. 그런데 孔子 이해의 階梯之學이라고 일컬어질 정도의 정통유가철학인 주자학은 어떤 이유로 인해서 범가와 도가라는 라이벌을 밀어내고 국가의 지도이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일까?<sup>6)</sup>

본고는 본격적으로 노재 허형을 연구하기 위한 준비성격을 갖는다. 때문에 허형의 철학사상을 직접 파고들기보다 허형의 사적과 그가 처했던 역사적 배경, 그 중에서도 허형의 학적 배경과 문제의식을 살펴보려고 하였다.

## 2. 許衡의 유년 시절과 학문적 배경

許衡은 금나라의 新鄭縣 陽暖里에서 1209년 9월 1일에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許通은 금나라와 몽고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황화 남쪽으로 이주해 온 사람이었다.<sup>7)</sup> 허형이 태어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2. 197~232면은 주자학이 송나라 말과 원나라를 거치며 분화되어 가는 양상을 학과로 정리하여 보여준다. 특히, 이 시대 남방의 주자학이해가 黃幹의 계보를 잇는다는 지적은 주의할 만하다.

- 5 원나라의 주자학 수용에 대해 土田健次郎(츠치다 겐지로)는 다음 논문이 참고할 만하다고 본다. 剛田英弘, 『世界史の誕生』, 筑摩書房, 1992)는 몽고왕조가 바로 이민족 왕조였기 때문에 주자학 수용에 거부감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杉山正明, 『クビライの挑戦-モンゴルごんへの道』(朝日新聞社, 1995)는 몽고왕조 자체가 이질적 요소에 대해 관대했다고 하여 주자학의 수용 원인을 몽고왕조의 성격에서 찾는다. 蕭功秦, 「元代理學散論-對蒙古貴族統治時代代理學的社會政治作用的考察」(『中國哲學』 3, 1985)은 원나라에 출사했던 주자학자들의 의식을 보여준다.
- 6) 土田健次郎 역시 이런 점을 언급한다. “첫째 본래 재야의 성격을 농후하게 가지면서 현실에 대해 비판적인 원리주의를 표방하는 道學이, 政體가 요구하는 가치규범의 대변자가 되었다는 점, 둘째 중화와 오랑캐를 엄격히 구별하는 도학(실은 이 점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을 국교화 했던 주체가 바로 오랑캐인 몽고왕조였다는 점이다.”(土田健次郎, 「社會と思想-宋元思想研究覺書」, 『宋元時代史の基本問題』, 汲古書院, 1996. 443면) 그는 이렇게 문제제기 한 후, 주자학이 이민족 대제국의 국교로 채택될 수 있었던 까닭을 理의 성격에서 찾는다. “여기서는 필시 주자학의 理가 갖는 성격, 결국 理의 내용결정의 기준이라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입장의 차이로부터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理의 내용 중 어느 것이 올바른 것인지 결정할 때, 그 근거가 정식화되고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 과정에서 물리적인 힘의 차이가 반영되어버렸던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후의 검토를 기다리고자 한다.”(앞의 글, 443면)
- 7) “許衡字仲平, 懷之河內人也. 世爲農, 父通, 避地河南, 以泰和九年九月, 生衡于新鄭縣.”(『元史』卷158, 「許衡傳」), “己巳[金]永濟大安元年九月一日許公生. [注] 公諱衡, 字仲平, 覃懷河內人也. 父通, 以避地故, 流寓新鄭縣陽暖里而生公.”(『許文正公遺書』卷首「考世略續」), “先生道號魯齋, 諱衡, 字仲平, 金大安元年己巳生于新鄭縣陽暖里.”(『新鄭縣志』, 「許文正公祠堂記」) “新鄭縣西山之左里曰陽暖, 魯齋先生許文正公所生地也. 先生世家河內, 金季其先人避兵是邑, 實先生生于里中, 金大安己巳歲也. 縣

나기 3년 전(1206년) 테뮈진(Temüjin)은 라이벌 나이만부를 격파함으로써 몽고고원을 통일하고 1206년 오난(Onan)강 상류에서 후릴타이를 열어 ‘한’으로 즉위했다.<sup>8)</sup> 몽고고원에서 강력한 국가가 출현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초무책과 以夷制夷의 외교책을 병용하여 유목민을 분열시켜왔던 금나라로서<sup>9)</sup> 몽고제국의 출현은 심각한 위협이 되었고 금나라의 사회에서는 전운이 감돌았을 것이다. 허형의 아버지인 許通은 금나라와 몽고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리라 예상하고서 황하 남쪽으로 이주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허형은 7~8세 무렵 배움을 시작한다.

[허형은] 어려서부터 뛰어난 자질을 갖고 있었다. 일곱 살 때 배움을 시작하여 ‘장구(章句)’를 배웠다. 스승에게 묻기를, “책은 무엇을 위해서 읽습니까?” 하였다. 스승은 “과거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이다.”라고 대답했다. 허형이 말하길, “그것뿐입니까?”라고 했다. 그러자 스승인 허형을 매우 특이하게 생각했다. 책을 가르쳐 줄 때마다 그 의미를 물었다. 얼마 지나자 스승은 허형의 부모에게 말하기를, “이 아이는 총명하며 예사롭지 않습니다. 후일 반드시 매우 뛰어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아이를 가르치기에] 합당한 선생이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결국 사양하고 떠나갔다. 허형의 부모가 강권했지만 머물게 할 수 없었다.<sup>10)</sup>

금나라는 칭기스한의 공격을 받고서 1214년 화친을 하게 되지만 금나라 宣宗은 이 조약을 이행하지 않고 황하 이남인 변량(汴梁)으로 수도를 옮겨 본격적인 전쟁준비를 시작했다.<sup>11)</sup> 변량으로 천도하는 금나라 조정을 따라서 관원 및 백성들도 남하했는데 그 수는 수십만을 헤아렸다고 한다. 개봉(開封) 지역도 이 인구를 다 받아들일 수는 없었기 때문에 개봉 부근인 新鄭縣(허형의 출생지)에도 이주민이 몰려들었다. 과거에 급제하지 못했던 儒生들의 경우 이주한 지역에서 교사직을 통하여 호구지책을 마련했는데, 허형의 스승들 역시 이러한 유생에 속하는 부류였을 것이다.<sup>12)</sup> 허형과 스승의 대화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 儒生들은 과거시험을 목표로 하여 ‘章句’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다. ‘章句’ 공부란 한문 문장에 표점을 찍고 나서 읽고 암송하는 것이다. 허형의 스승들이 허형에게 가르쳐 주고자 했던 교육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황하 이북 지역의 학문이 대체로 어떠한지 알 필요가 있다. 아베 타케오[安部健夫]에 따르면, 원나라의 과거시험은 금나라 과거시험을 그대로 답습했다

學有司以祀, 先生其事具碑.”(『欽定四庫全書』集部五 中『魯齋遺書』卷十四)

8) 金浩東, “蒙古帝國의 形成과 展開”, 『강좌중국사 III』, 서울: 지식산업사, 1994. 256면.

9) 위의 글, 267면.

10) “幼有異質, 七世入學授章句, 問其師曰, 讀書何爲. 師曰, 取科舉耳. 曰, 如斯而已乎. 師大奇之. 每授書又能問其旨義, 久之, 師謂其父母曰, 兒穎悟不凡, 他日必有大過人者. 吾非其師也. 遂辭去. 父母強之而不能止.”(『元史』卷158, 「許衡」)

11) 김호동, 앞의 글, 267면.

12) 王民信, “許衡”, 『中國歷代思想家(32)』,臺北:臺灣商務印書館, 1978(2판), 9면.

고 하며, 금나라 과거시험은 詞賦·經義·策論의 3과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그 중에서도 詞賦과 가장 인기를 끌었고, 이 중에서 策論 합격자들은 다른 과목에서도 모두 합격한 것으로 보아 策論은 그저 부과적인 科目에 지나지 않으므로 금나라 과거시험의 주요과목은 결국 詞賦와 經義로 압축된다고 한다.<sup>13)</sup> 특히 금나라가 남천한 후 황하 이북 지역에서 세력을 확보하고 이후 원나라에 투항하여 나름의 자치구를 형성했던, 東平 지방의 嚴實(字는 武叔)이라는 사람은 금나라 문화의 계승자임을 자부하면서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양인들을 東平으로 불러 모았으며 아울러 그 지방에 東平府學이라는 학교를 세웠다. 이 東平府學은 주로 과거시험공부를 시켰으며 그곳에서 치루는 시험은 詞賦였다.<sup>14)</sup> 때문에 허형을 가르쳤던 스승들 역시 詞賦공부를 하거나 章句·注疏 공부를 주로 했으리라고 간주해도 틀림없을 것이다. 詞賦와 經義를 위한 과거 공부는 결국 作文·作詩와 문장 암송이었다. 이러한 공부는 사대부적 교양의 가장 기본을 이루는 바, 유교의 경전을 암기하고 암기한 내용을 종횡으로 인용하면서 상황에 적절한 문장을 짓고 그런 가운데 자신의 사상을 피력하며, 또한 詩를 지으면서 자신의 性情을 도야하는 것이다.<sup>15)</sup> 그리고 그러한 공부의 기저에는, 聖인이 지은 문장은 우주의 이치를 그대로 드러낸 것[文]이기 때문에 어느 시대·어느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생각, 바꾸어 말하면 어느 시대·어느 상황이라도 聖인이 지었던 ‘文(형식)’이라는 틀을 통해서 파악·이해해야 한다는 생각과 아울러, 文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천지의 조화와 그 일부분인 자신의 性情을 표현해 낼 수 있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곧, ‘天地-文-인간’이라는 도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 각 개인은 天地의 道를 직접 체득하기보다 文이라는 기성의 ‘체계’ 적 형식 속에 편입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렇듯 文이라는 기성의 ‘체계’ 를 강조하게 될 때 사람은 주체성을 상실하고 형식주의로 빠져들 위험이 있는 것은 어찌면 당연하다. 더구나 과거시험을 위한 공부가 될 때 그럴 가능성은 훨씬 농후한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시험 제도가 있기 위해서는 응시자의 답안을 공정하게 채점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필요할 것이며, 과거응시자는 그 객관적 기준을 알아내고 그 기준에 들어맞는 공부를 하려고 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허형이 불과 열 살도 되기 이전에 자신의 스승에게 책을 읽는 목적을 물어보고, 단지 과거시험준비를 위한 것이라는 답을 듣고 나서 실망했다는 일화는 허형의 총명함을 보여주는 실례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금나라 학풍을 비판하려는 의도에서 이 일화를 부각시켰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한다.

한편, 수도를 황하 이남으로 옮겨서 개봉 및 그 부근인 신정현 지역은 일시적인 인구 폭

13) 安部健夫, 「元代知識人と科擧」, 『元代史の研究』, 東京: 創文社, 1972, 11~13면.

14) 위의 책, 23~28면. 이후 東平府學 출신들은 원나라 조정에 대거 진출하여 하나의 파벌을 이루며, 특히 翰林院으로 많이 진출했다고 한다.

15) 島田虔次, “宋學の展開”, 『中國思想史の研究』, 京都: 京都大學出版部, 2002, 372~373면.

증을 겪었을 것이므로 물자 역시 부족하게 되었을 것이다. 때문에 굶주리는 민중들이 많았지만 먼저 황하 이남으로 이전했던 허형의 가문은 나름대로 그 곳에서 자리를 잡았던 듯하다.

당시 굶주린 민중들은 [먹을 곡식이 없어서] 도토리과 밤을 먹었고 심지어 서로 자식을 바꾸어서 먹기도 했다. 선생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책이 있다는 소문을 들으면 곧바로 가서 구해 보았다. 선생의 부모는 [혼자 가는 것을] 위험하게 여기고 매번 함께 가 주었다. 다른 사람들은 세상 물정 모르는 짓이라고 비난했다.<sup>16)</sup>

다른 피난민들이나 물자부족을 겪고 있는 주민들보다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허형의 부모는 허형의 교육에 심혈을 기울였던 듯하다. 또한 앞서 지적했다시피 황하 이북 지역에 살던 수많은 관리들과 유생들이 금나라 조정을 따라 황하 남쪽으로 이주했는데 이들은 서적들도 다수 소유하였기 때문에 허형은 새로운 서적을 구독하기에 더욱 유리한 여건에 있었을 것이다.

허형이 배움을 시작했을 때(1215~16년)는 금나라 정부가 남천한 지 이제 겨우 한 두 해가 되었을 때이다. 정부 자체가 안정을 찾지 못했던 시기였으므로 공교육 제도 역시 거의 붕괴되었을 터이며 이와 연동하여 과거제도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허형에게는 과거시험에 합격하여 관직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허형과 같은 예비지식인은 어떤 길을 취해야 할까? 허형의 부모는 두 가지 길을 취한다. 첫째, 친인척 관계를 이용하여 허형으로 하여금 지방행정기구의 말단관리가 되게끔 하는 것이었다. 둘째, 占術을 배우게 했다.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불안해하는 백성들의 필요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고, 아울러 생계를 마련할 유용할 수단도 되리라 기대했을 것이다.

그 때 민중은 변경 방비 노역에 동원되어 고생하고 있었다. [선생의] 숙부는 그 때 마침 현의 관리였다. 선생께서는 [숙부를 따라서] 현리의 업무를 배웠다. 주민의 명부를 정리하고 기록하였으며, 법을 적용하는 원칙과 형벌을 적용하는 원칙을 연구했다. 시간이 흐르자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 宣宗의 山陵일 때문에 州縣이 쫓아다니며 옆에서 간섭하자 숙부를 대신하여 일을 맡았다. 이후 執政이 화내는 것을 보자 숙부는 감히 나타날 생각을 못하다가, 선생께서 [집정에게] 대드는 것을 보자 비굴한 말로 [집정을] 위로해 주었다. [선생은] 돌아와서 탄식하며 말씀하시기를, “백성이 삶을 향유하지 못하는데, [집정은] 남의 잘못을 들추어내어 자기는 벗어나려 하는구나” 라고 하셨다. 결국 다시는 현청에 가지 않았고 배움을 추구하기로 결심했다.<sup>17)</sup>

16) “時歲，饑民食橡栗，或易子而食。先生聞人有書，即往求觀，父母危之，每與俱往，人厭其迂。”(『魯齋遺書』卷十三，“考歲略”)

17) “時民間徭戍繁迫，舅氏適典縣吏。先生從授吏事，參 名議，考求立法用刑之原，久之以應辦。宣宗山陵州縣，追呼旁午，代舅氏分辦。因見執政方怒，舅氏不敢見，及見先生應對，則以溫言撫慰。及還，嘆曰，民不聊生，而事督責以自免，吾不爲也。遂不復詣顯，而決意求學。”(『魯齋遺書』卷十三，“考歲略”)

이 사건은 허형이 15세 때 일어났던 일이다.<sup>18)</sup> 중앙정부가 정한 명령과 法, 그리고 형법에 따라 백성을 통제하여 일원적 지배체제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유가적 이상에 부합하지 않는다. 더구나 몽고와 일전을 앞두고서 국가총동원령을 내렸을 금나라 조정은 지배체제를 더욱 공고하게 만들고자 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백성의 노동력은 착취되고 그 자율성도 부정되기 마련이다. 도덕적 우월성을 바탕으로 권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하여, 인간을 소외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십상인 권력을 비판하고 순치시켜야 할 유가적 지식인이 한낱 권력의 말단 하수인이 되어 백성의 자율성을 억압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허형은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다. 때문에 허형은 다시 배움의 길로 나아가고자 했다. 그렇다면 그 배움이란 어떤 것이었을까?

이 때 나라는 날로 어려워져갔고 민중들은 모두 정치 없이 떠돌았다. 따라서 배울 스승도 없고 책도 없었다. 선생의 부모는 세상에 난이 일어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점치는 기술을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수단이 되리라는 점을 [선생이] 알도록 하고자 했다. 결국 점치는 사람에게 배우도록 했다. 그래서 역술가의 집에서 『尙書疏義』가 다 헤치고 흩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던 것이다. 선생님께서는 세 번 가서 그 집에서 머물면서 손으로 모두 베꼈다. 이때부터 책을 무덤으로 삼기로 결심했다. 옛 것을 추구하고자 했던 까닭은, [옛 것이] 통치와 배움을 위한 실마리가 되며 마음을 보존하고 실천하기 위한 방법이 되기 때문이었다. 한 마디 일거수 일투족을 모두 『書經』에 있는 고사에 비추어서 했다. 비록 난세였지만 사람들이 점차 선생님을 찾아와서 배우기 시작했다.<sup>19)</sup>

허형의 부모가 예상했을 “세상의 난리”는 몽고의 금나라 침공을 뜻한다. 1229년 외괴데이(窩闊台)가 칭기스汗을 뒤이어 즉위하였고, 1232년 그는 송나라와 협약을 맺어 송나라의 潼關 땅을 경유하여 금나라를 침공하기로 했다. 외괴데이는 中軍을 이끌고 碗子城 남쪽(현재 河南 河內縣 북쪽)에서 황하를 건너 남하한 후 방향을 바꾸어 동진했고, 투어레이(拖雷)는 右軍을 이끌고 寶鷄에서 渭水를 건넌 후 宋나라의 협조를 얻어 宋나라의 경계를 따라 漢水를 건넌 다음 곧바로 唐鄧으로 내려갔다. 韓陳那顏은 左軍을 데리고 濟의 남쪽에서 서진하여 汴京을 협공했다. 三峰山(지금의 河南縣 동남쪽)에서 금나라 군대는 참패하고 몽고군대는 汴 지방을 포위했으며 금나라 哀宗은 수도방위대의 식량이 다 떨어지자 汴 지방을 탈출하여 도망쳤는데 歸德(지금의 河南 南邱縣)을 거쳐 蔡州(河南 汝南縣)로 갔지만 금나라는 멸망당한다. 이때가 1234년이다. 따라서 허형이 부모의 권유대로 점술을 배우기 시작한

18) 王氏信, 위의 글, 10면.

19) “是時, 國日以威, 民皆轉徙. 無從師授, 亦無書籍. 父母知世將亂, 因欲稍知占候之術, 以爲避亂計. 遂領與占者游, 故於推步占候之家, 見書疏義, 皆散亂毀缺. 先生凡三往, 就宿其家, 皆手錄之. 由是刻意填典, 欲求古者, 爲治爲學之序, 操心行己之方. 一言一行, 必質諸書故. 雖亂離之際, 人亦稍稍從學焉.” (『魯齋遺書』卷十三, “考歲略”)

시점은 몽고의 침공이 시작되기 전인 1232년 이전이 될 것이다. 그런데 허형은 점술을 배우는 한 편, 점술가의 집에서 다 헤어진 『尙書疏義』를 발견한다. 역시 점술 자체에 매력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다. 이렇게 허형은, 한 번은 관청에 들어가서 실무를 배웠고 한 번은 세상에서 물러나 점술을 배웠다. 두 직업은 서로 대조적이다.

허형은 의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으나 새로운 길로 나아가기 시작한다. 그는 일거수 일투족을 점친 결과에 따라서 움직이는 대신 “일거수 일투족을 모두 『書經』에 있는 고사에 비추어서” 하게 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점 두 가지가 있다. 첫째, 허형은 일생동안 『周易』과 『書經』을 깊이 연구하였다는 점, 둘째, 음양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天地의 조화에 자기 자신을 적응시키려 하기보다, 『書經』으로 대면되는 고대 봉건제의 도덕적 이념이 세계와 자신의 본질임을 확신하고 그것을 자기 행동과 사상의 안내자로 삼고자 했다는 점이다. 천지의 조화에 자신을 적응시키는 입장은 인간이 天에 따라야 한다는 天譴論의 사유를 수반한다. 반면 허형은 점술에 일방적으로 의존하기보다 『書經』으로 대면되는 고대 봉건제의 도덕적 이념을 체득하려 했기 때문에, 인간이 天에 일방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수동적 사유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다.<sup>20)</sup>

허형이 24세 때 몽고군이 新鄭縣을 점령하자 이 지역을 탈출하여 25세 1년 동안 저래산(岵嶽山)으로 피난했다.<sup>21)</sup> 피난 가는 도중의 일화가 유명한데, 여기서 ‘고대 봉건제의 도덕 이념을 사상과 행동의 안내자로 삼았던’ 모습이 어떠했는지 여실히 볼 수 있다.

전쟁 중에도 허형은 깊은 밤중에는 사색했으며 낮에는 경전을 암기했으며, 몸으로 직접 그 말에 따라 실천했다.<sup>22)</sup> 말과 행동은 반드시 도덕 기준에 부합한 이후에야 대외적 일을 시작했다. 전쟁 중 한여름에 강을 건너갔는데 햇볕으로 인한 갈증이 너무 심했다. 길옆에 배나무가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투어서 따먹었으나, 허형은 혼자서 나무 아래에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정좌하고 있었다. 어떤 이가 그 까닭을 물으니 “내 소유가 아닌 것은 취하면 안 됩니다”라고 대답했다. 그 사람이 “세상이 어지러워서 이 배나무에는 주인이 없소이다”라고 말했는데, 허형은 “배나무에 주인이 없다고 해서 내 마음에도 주인이 없겠습니까?”라고 대답했다. 노(魯)지방을 떠나서 위(魏)지방으로 갔는데 그 지방 사람들이 허형의 유덕함을 보고서 점점 그를 따랐다. 그 지방에서 3년 동안 살았는데 난이 안정되었다는 말을 듣고 돌아왔다...<sup>23)</sup>

시시각각으로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점술에 의거하지 않고 도덕적 이념에 근거한다 함이 어떠한 것인지 잘 보여준다. 위 인용문을 분석해 보자. 허형이 처했던 “때”는 피난하는 와

20) 小島 毅, 『宋學の形成と展開』, 東京: 創文社, 1999, 42면.

21) 陳正夫·何植靖, 『許衡評傳』, 南京: 南京大學出版社, 17면.

22) 『宋元學案』의 「魯齋學案」에는 “身體力踐之” 구절이 빠져 있다.

23) “兵亂中, 衡夜思書誦, 身體力踐之. 言動必揆諸義而後發. 賞署中過河, 陽渴甚, 道有梨, 衆爭取啖之. 衡獨危坐樹下自若. 或問之曰, 非其有而取之不可也. 人曰, 亂世, 此無主. 曰, 梨無主, 吾心獨無主乎. 轉魯留魏, 人見其有德, 稍稍從之. 居三年, 聞亂且定, 乃還.” (『魯齋遺書』卷13, 「元史」)



중 갈증이 날 때 배나무를 접한 “때”이다. 그렇지만 허형은 “내 소유가 아닌 것은 취하면 안 된다”는 “도덕 기준”[義]을 갖고 있다. 그런데 허형에게 질문한 사람은 “배나무에는 주인이 없다”는 또 하나의 상황을 인지시켜 주고 있다. 이는 또 하나의 “때”인 것이다. 허형 자신의 논리에 따르면, 그 역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배를 따먹었어야 한다. 그러나 허형은 이러한 “때”에 접해서 “배나무에 주인이 없더라도 내 마음에는 주인이 있다”고 대답하고 있다. 일견 허형은 외적 상황과 무관하게 자신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전쟁 중 배나무밭 주인이 배나무 밭을 남겨두고 피난을 가버린 상황이지만, 곧 “배나무에 주인이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배나무를 내 소유로 하기 위한 어떤 절차도 밟은 일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나에게 배를 따먹을 권리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주인이 지켜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따먹어도 된다는 생각을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점을 허형은 지적하고 싶었을 것이다. 곧 허형은 자신이 속해 있는 “때”를 피상적으로 이해하면서 이 “때”에 그대로 순종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처해 있는 상황[時]과 자신이 갖고 있는 원칙[義]을 끊임없이 비교해 가면서 결론을 도출하려는 자세를 그는 갖고 있었던 것이다.<sup>24)</sup>

이처럼 허형이 배움을 시작한 7~8세 무렵부터 25세까지 허형이 겪었던 일은 실로 다사다난하다. 감수성이 예민할 10대와 이상에 불타오를 20대 초반에 겪었던 참화의 경험은 어떤 식으로든 그의 사상 근저에 침전되어 있을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허형이 배움을 막 시작했을 때 받았던 교육은 경전암송과 작문공부였지만 그는 이것을 만족스럽지 않게 생각했다. 그는 ‘文’이라는 형식이 아니라 그 근저에 있는 의미를 직접 체득하고자 열망했다. 10대 후반, 허형은 국가의 중앙집중적 체제의 말단 관리로 있고자 하지도 않았으며 그렇다고 해서 점술가들처럼 세속에서 한 걸음 물러나 앉고자 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전쟁이라는 급변하는 정세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의식은 계속 남아 있었을 것이며, 그는 『尙書疏義』를 발견하고 읽음으로써 고대 유가의 경전에 나타난 이념이 세계와 자신의 본질임을 확신하고, 그 이념에 따라 대처하기로 마음을 먹는다.

## 2. 허형의 주자학 입문

몽고가 금나라를 정복한 후 어느 정도 세상이 조용해지자 허형은 다시 학업을 시작한다.

난리가 끝난 후, 선생께서 魏지방에 사실 때 竇默子聲은 침술로 명성을 얻고 있었다. 그는 누

24) 李遠碩, “南冥 出處觀의 哲學的 根據”, 『南冥學報』, 서울: 南冥學會, 2002. 29면.

차 조정으로 나오라는 부름을 받았지만 역시 魏지방에 은거했다. 선생을 매우 존경하여 서로 만날 때마다 하루 종일 꿇어앉아서 함께 경전에 대해 얘기하고 불교와 도교의 교의도 두루 보았으며, 심지어 의약·복서·제자백가·병형·화식·수리·산수 같은 것들도 모두 자세하게 연구했다. 雪齋 姚樞가 당시 道學의 이념을 갖고 있었는데, 선생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배우며 실천하신다는 소문을 듣고서 이후 魏지방을 지나갈 때 서로 만났다. 미세한 부분도 분석하고 깊은 오의를 밝혀내면서 침식을 잊었다.<sup>25)</sup>

허형이 竇默과 처음으로 만난 때는 허형의 나이 서른두 살 때였다.<sup>26)</sup> 그런데 『元史·許衡傳』은 이 부분을 약간 다르게 설명한다.

柳城의 姚樞로부터 伊洛의 程氏와 新安 朱氏의 책을 얻었는데 더욱 큰 깨달음이 있었다. 蘇門에 거처하면서 姚樞, 竇默과 함께 서로 연구하고 학습했다. 經傳·子史·禮樂·名物·星曆·兵刑·食貨·水利 등 연구하지 않은 분야가 없었다. 그러면서 분연히 道의 체득이 자신의 임무라고 여겼다. 일찍이 “綱常은 하루라도 천하에서 없어지면 안 된다...”라고 했다.<sup>27)</sup>

『考歲略』은 ① 두목과 교유 시작, 불교·도교에서 算數까지 博學을 했다, ② 姚樞를 만나서 처음으로 주자학을 접했다, ③ 주자학을 접한 후 이전의 학문을 모두 부정했다고 말한다. 반면 『元史·許衡傳』은 ① 姚樞로부터 주자학을 접했다, ② 姚樞·竇默과 함께 博學을 했다, ③ 道의 체득이 자신의 임무라고 여기면서, “綱常은 하루라도 천하에서 없어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서술한다.

두 자료는 ‘博學’에 대하여 서로 입장이 다르다. 『考歲略』은 博學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만 『元史·許衡傳』은 주자학을 습득한 바탕 위에서 박학을 했고, 주자학적 이념에 따라 박학을 한 결과 道의 체득을 자신의 임무라고 여겼다는 것이다. 과연 어느 쪽 해석이 타당할까? 재미있는 점은 조선의 유학자 南冥 曹植의 후학들도 이 문제로 고민했다는 사실이다. 남명에 관한 초기 자료는 博學을 남명 사상의 주요 특징으로 삼았으나, 19세기 말 남명의 후손 조원순(曹垣淳)은 이를 부정하고서 주자학적 깨달음 이전 곧 사상이 아직 미성숙했을 때 博學을 했던 것이라고 정리해 버렸다. 17~18세기에 걸친 주자학과 인사들의 남명 공격에 대응하여, 조원순은 남명을 정통 주자학자의 반열에 올려놓고자 했으며 그 결과 博學을 남명 초년의 유치한 학문이었다고 간주한 것이다.<sup>28)</sup> 그러나 필자는 17세기 쪽 자료들이

25) “難後, 先生隱居於魏時, 竇默子聲, 以針術得名. 累被朝廷徵訪, 亦隱於魏. 最知敬先生, 每相遇, 危坐終日, 出入經傳, 泛濫釋老, 下至醫藥卜筮諸子百家兵刑貨殖水利算數之類, 靡不研精. 雪齋姚樞公茂, 方以道學自任, 聞先生苦學力行, 因過魏相與聚居, 剖微窮深, 忘寢與食.” (『魯齋遺書』卷十三, “考歲略”)

26) 陳正夫, 앞의 책, 17년.

27) “從柳城姚樞, 得伊洛程氏及新安朱氏書, 益大有得, 尋居蘇門, 與樞及竇默相講習, 凡經傳子史禮樂名物星曆兵刑食貨水利之類, 無所不講, 而慨然以道爲己任, 嘗語人曰, 綱常不可一日而亡于天下.” (『元史·許衡傳』)

28) 李遠碩, “南冥의 修養論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 『南冥學報』, 서울: 南冥學會, 2003, 73면.

더욱 신빙성을 갖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근거는 첫째 그것이 남명 직제자들의 기록이기 때문이며 둘째, 남명 후학들 중 기술관료와 군인이 다수 배출되었다는 점 때문이다.

마찬가지 논리로 『元史·許衡傳』과 『考歲略』을 보자면 『考歲略』 쪽이 더욱 주자학에 부합한다. 그러나 위에 열거한 博學의 항목을 하나씩 검토해 보면, 불교는 일단 차치하고, 금나라에 도교계통의 全眞敎가 성행했으므로 허형과 두목 역시 도교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었을 것이며, 醫藥의 경우 두목 자신이 침술로 명성을 얻고 있었다. 卜筮는 허형이 한 때 배웠던 분야이며 허형은 피난 중에도 왕필의 周易注를 읽을 정도로 卜筮에 관심이 깊었다. 전쟁의 체험으로 전술을 개략적이거나 알게 되었을 것이며 형법 역시 허형이 한때 공부했던 분야였다. 算數의 경우, 허형이 스스로 계산법에 관한 책을 써서 몽고 귀족 자제들을 교육시킬 정도의 소양이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만년에 역법을 개정할 정도의 과학기술에 정통했던 자이다.

또한 허형이 요추로부터 얻었던 책이 만일 주자의 전집이나 어류 전집이었다면 그 방대한 자료를 읽느라고 博學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요추로부터 얻은<sup>29)</sup> 서적은 『伊川易傳』과 주희의 『논맹집주』·『중용대학장구혹문』·『소학』 등에 불과했다. 양이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주자학 공부와 博學 공부의 병행이 결코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더 나아가 『元史』의 말대로, 자칫 방만해지기 쉬운 博學에 주자학은 일정한 방향성을 부여해 주었을 수도 있다. 이상과 같이, 博學의 대상이었던 여러 분야가 허형과 두목에게는 익숙한 분야였다는 점과 전해 받은 주자학 관련 서적의 양이 실은 방대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考歲略』보다 『元史·許衡傳』 쪽의 서술이 보다 신빙성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sup>30)</sup>

그런데 許衡은 주자학을 어떤 식으로 이해했는가?

壬寅년(1242년) 雪齋는 蘇門에 은거하면서 남쪽 선비 趙仁甫가 전해 주었던 伊洛의 학문을 전과하였다. 선생님께서는 곧바로 蘇門으로 가서 그 학문을 구하여 伊川易學과 晦庵의 논맹집주·중용대학장구혹문·소학 등의 책을 얻었다. 이 책들을 읽고서 마음속으로부터 깊이 깨달았다. 결국 한 글자 한 글자 손으로 베껴 쓴 후 돌아와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시기를, “예전에 가르쳤던 것은 매우 허무맹랑한 것이었다. 이제야 비로소 배움으로 나아가는 실마리를 알았다. 만약 나를 꼭 따르고자 한다면 예전에 배웠던 章句의 학습을 버리고 小學을 공부하여 ‘마당에 물 뿌려 청소하고 손님 응대하는 일상예절’을 덕을 체득하기 위한 기초로 삼아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다른 선생을 찾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셨다. 학생들은 모두 “예”라고 대답했다. 마침내 예전의 책들을 모두 모아서 불태워 버렸다. 나이가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모두 小學 공부부터 시작하도록 했다. 선생님 역시 아침저녁으로 강론하고 암송하기를 끊이지 않았으

29) 요추는 포로로 잡힌 趙復이라는 南宋 출신 유학자로부터 얻었다.

30) 陳正夫(앞의 책, 46-47면)와 安部健夫(앞의 책, 48면) 역시 필자와 같은 견해이다.

며 의지를 독실히 하고 열심히 실천함으로써 몸소 모범을 보이셨다. 엄동설한이나 무더운 더위 속에서도 쉬지 않았다. 학생들이 선생님 앞을 드나들 때면 몹시 두려워했다. 다만 예의를 갖춘 손님이 오면 기뻐하면서 접대하여서 손님이 감동케 하였으며, [손님은] 선한 의지에 젖어든 후 떠났다.<sup>31)</sup>

여기서 남쪽 선비 趙仁甫는 趙復을 가리킨다. 趙復은 南宋의 德安 출신으로서 몽고로 체포되어 온 사람들 중 한 명이었다. 그가 과거시험에서 낙제하고 돌아온 직후인 1235년 포로가 되어 북상하게 되었는데, 역설적으로 바로 이 사람에 의해서 원나라에 주자학이 전해진다. 1235년 외괴데이한(窩闊台汗)은 “楊惟中으로 하여금 軍前行中書省 일을 맡아보게 했으며, 姚樞에게는 楊惟中 밑에서 군대를 따라 다니며 儒·釋·道·醫·卜·酒工·樂人 등을 찾아내도록 했다. 포로명단에 있는 모든 儒生들은 「姚樞가 그 신원을 확인할 때마다」 그들을 석방시켜 집으로 돌아가도록 했다.(凡儒生 俘籍者, 輒脫之以歸)” 그 해 겨울, 몽고군은 계속해서 襄陽, 光化軍, 均州, 鄧州, 德安府 등을 격파했고, 德安을 함락시킬 때 姚樞가 趙復을 사로잡은 것이다.”<sup>32)</sup> 조복이 과거시험을 치를 때 시험관이 眞德秀였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그 당시 주자학이 사회적으로 상당한 존중을 받았으며 조복 역시 주자학을 열심히 공부했으리라 추론해 볼 수 있다. 조복은 포로가 된 이후 자살하려고 했지만 姚樞의 설득을 받고서 몽고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으며, 이후 “程子和 朱子が 지은 주석서들을 기록했던 것을 가지고서 그 모든 내용을 베껴 姚樞에게 주었다.”<sup>33)</sup> 위 인용문의 雪齋는 바로 姚樞의 號이다. 姚樞는 趙復으로부터 송대 道學을 전수받은 후 자신의 고향에서 이 새로운 학문을 전파했던 것이다. 위 인용문에 근거해 보면 姚樞가 趙復으로부터 전해 받은 책은 “伊川易學과 晦庵의 논맹집주·중용대학장구혹문·소학” 등이었다. 곧 현재 우리가 보는 『주자대전』·『주자어류』와 같은 전집이 아니라 주로 경전에 대한 二程과 주희의 주석서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 인용문은 허형이 이들 책을 통하여 주자학 전반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다는 식으로 서술하지 않고 허형이 『소학』에 주목했다는 사실을 특필한다. “예전에 가르쳤던 것은 모두 허무맹랑한 것이었다”고 스스로 말한 것을 보면 허형은 상당한 지적 충격을 받은 듯하다. 문맥을 보건대, 그것은 주자학서를 보기 이전 자신이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내용과 『소학』의 내용이 정면으로 배치될뿐더러, 이전에 풀기 어려웠던 문제에 대한 답을 『소학』이 제시해 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주자학서를 보기 이전 그가 학생들

31) “壬寅, 雪齋隱蘇門, 傳伊洛之學於南士趙仁甫. 先生即詣蘇門, 訪求之, 得伊川易傳晦庵論孟集註中庸大學章句或問小學等書. 讀之深有默契於中, 遂一手寫以還. 聚學者謂之曰, 昔者授受殊孟浪也. 今始聞進學之序. 若必欲相從, 當悉棄前日所學章句之習, 從事於小學, 洒掃應對以爲進德之基. 不然, 當求他師. 衆皆曰, 唯. 遂悉取向來簡帙焚之. 使無大小, 皆自小學入. 先生亦旦夕講誦不輟, 篤志力行, 以身先之. 雖隆冬盛暑, 不廢也. 諸生出入惴栗, 惟謹客至, 則歡然延接, 使之惻然動念. 漸濡善意而後出.”

32) 魏崇武, “趙復理學活動述考”, 『中國哲學與哲學史』, 1995. 1. 70면.

33) “以所記程朱所著諸經傳注, 盡錄以付樞.” (『元史·趙復傳』)

에게 가르쳤던 내용이 무엇인지 알면, 그 충격의 내용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는 주자학서를 베껴서 돌아와서 학생들에게 “예전에 배운 章句의 학습을 버리라”고 말한다. 곧 그가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것은 과거시험에 공부하기 위한 章句식의 학습이었다.

허형이 姚樞로부터 朱子學書를 얻기 4년 전 원나라에서는 耶律楚材의 주도로 최초의 과거시험이 치루어졌다. 이름하여 戊戌選試였다. 비록 승려와 道士들을 선발하여 그들에게 면역·면세의 특권을 주고자 하는 것이 원래 목적이었지만 이들과 아울러 유학자들에게도 시험자격이 주어졌다. 과거시험의 재개는 실의에 빠졌던 漢族 지식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건이었다.<sup>34)</sup> 야율초재가 금나라 출신이었던만큼 戊戌選試는 금나라 과거시험을 그대로 답습한다. 본고의 서두에서도 지적했다시피 금나라의 과거시험은 詞賦와 經義를 주로 했고, 이 중에서도 특히 詞賦를 중시했다.<sup>35)</sup> 때문에 원나라의 한족 지식인들은 과거시험을 치루기 위해서 다시 作文·作詩와 경전 암송을 시작했을 것이다. 이 공부는 허형이 어렸을 때 스스로 만족해하지 못하던 공부방법이었는데, 이제 자신이 스승의 입장에서 단지 과거시험을 위해 학생들을 위해 作文·作詩와 경전암송을 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小學』은 이와 같은 답답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길로 여겨졌다. 作文·作詩와 경전암송을 통해서 문장적 형식의 숙달을 기하는 공부는 과거제도와 결합할 경우 심각한 문제를 노정한다. 곧, 시험평가 기준 자체가 최고의 기준이 되어 버리게 되는데, 이 기준은 도덕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라 응시자의 ‘기술’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버리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또한 더욱 근본적으로, 紙上에 있는 문장은 무궁한 天理를 도저히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작문에만 매달리면 끝내 天理를 체득할 수 없게 된다.

요즘은 일생의 정력을 文에 집중시켜, 글을 꾸미고 글의 배치를 바꿔 가면서 기교를 극대화하는데 그렇게 하면 「도덕적 절목인」 文理를 표현할 때 빠뜨리는 곳이 많을 것이다. 요즘 글을 잘 짓는 선비들은 요임금·순임금·주공·공자·증자·맹자의 말을 하는데, 그 사람들의 말과 그 사람들의 행실을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매우 크다. 文에 전념하지 않으면서, 聖人の 말을 따르고 聖人の 마음을 추구한다면 깊이 체득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장의 해악은 道에 해악을 끼친다는 점이다.<sup>36)</sup>

문장은 사람의 지력에 의해 종이 위에 쓰인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무한한 天理를 도저히 모두 담을 수 없다. 그래서 문장을 짓거나 읽는 행위는 天理의 체득을 보증할 수 없다. 반

34) 安部健夫, 앞의 책, 7~10면.

35) 위의 글, 11면.

36) “今將一世精力專意於文, 鋪敘轉換, 極其工巧, 則其於所當文者, 闕漏多矣. 今者能文之士, 道堯舜周公曾孟之言, 如出諸其口, 由之以責其實, 則霄壤矣. 使其無意於文, 由聖人之言, 求聖人之心, 則其所得, 亦必有可觀者. 文章之爲害, 害於道.”(『魯齋遺書』「語錄上」 제58조)

면, 『小學』은 철저하게 ‘사람을 도덕적으로 만드는 관점’에 입각한다. 곧 어렸을 때부터 어른이 되기 전까지, 일상생활에서 사람의 외적 행동을 제어하도록 함으로써 경건한 태도를 유지하도록 만든다. 경건한 태도로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갈 때 사람은 인간관계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로부터 자신의 본질[性]이 무엇인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일정한 전통적·문장적 형식을 매개로 진리에 간접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일정하게 제어함으로써 진리를 직접 체득해 나가게끔 하는 것이다. 15세 이후 성인이 된 다음에는 경전을 통하여 그 이치를 입증하게끔 하는 大學 공부가 있다. 때문에 “小學은 大學을 위한 필요불가결의 전제인 것이다.”<sup>37)</sup>

더구나 허형이 이전부터 고민하던 사회참여와 은둔의 양자택일의 문제에서 『小學』은 해답을 주었으리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小學』은 사회생활 속에서 자신의 경건한 태도를 유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진리에 이를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해 주기 때문이다. 또한 그러한 이유 때문에 小學 공부는 단지 15세 미만의 어린 학동들만 해야 할 공부가 아니라 자신을 포함한 성인들도 해야 할 공부이다.

하지만 허형의 고민에 『小學』이 돌파구를 마련해 주었다고 해서 그가 송대 道學을 완벽하게 이해했다는 것은 아니다.

己酉(1249)년 선생님 나이 마흔 한 살 때, 伊洛의 학문을 스스로 체득하였으니 얼음이 녹듯 이치가 이해되어 그 맛이 마치 맛있는 고기와 같았다. 이 전에 말씀하시기를, “밤 내내 생각하다가 「깨달음을 얻고서」 손이 춤추고 발이 구르는 것조차 알지 못했다.”고 하셨다. 이 해에 『讀易私言』을 지으셨다. 선생님께서는 『서경』과 『역』에 대해서 매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배우는 이들이 『서경』과 『역』을 배우기를 청할 때마다 小學 공부를 하라고 하였고 결국 『서경』과 『역』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었다.<sup>38)</sup>

위 인용문에서 보다시피 허형은 처음으로 주자학을 접한 지 7년만어야 비로소 그 오의를 깨달았다고 한다. 깨달음을 얻은 바로 그 해에 『讀易私言』을 지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독역사언』에 그 깨달음의 내용이 있을 것이다. 일본의 한 연구자는 허형의 사상을 “수시변역”(隨時變易; 때에 따라 변화하다)과 “덕성용사”(德性用事; 자신에게 내재한 덕성에 의거해 직각적으로 행동한다)로 파악하고 있다. “수시변역”은 허형의 『독역사언』(讀易私言)을 분석한 결과 얻은 결론인데, “때”와 “도덕원칙” 양자를 따르면서 그 사이에서 진정한 “중정”(中正)을 실현하는 것이 『독역사언』의 입장이라고 말한다.<sup>39)</sup> 곧 자신에게 주어진 구체

37) 『魯齋遺書』卷三, “小學大義”

38) “己酉, 先生四十一, 自得伊洛之學, 氷釋理順, 美如芻 . 嘗謂, 終夜以思, 不知手之舞之足之蹈之. 是歲有讀易私言. 先生於書於易, 尤多致力. 然每學者請問, 則必從事於小學, 卒未嘗以此語也. 庚戌春, 先生力疾還鄉里, 過衛聞懷之政, 猶苛虐, 遂止蘇門, 與雪齋相比, 以便講習, 且爲還鄉之漸. 辛亥雪齋赴, 徵先生. 獨處蘇門, 便有任道之意.”

적 상황 속에서 그 변한 상황에 맞게 도덕원칙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중”(中; 적합함)이자 “정”(正; 올바름)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변하는 상황에 올바르게 대처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 허형은 “덕성에 의해 일을 하고(德性用事) 물욕(物欲)에 의해 행동하지 않으면, 수시변역으로써 道에 합치할 수 있다”<sup>40)</sup>고 말하고 있다. 곧 수시변역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여 변하는 상황에 따라 도덕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천주체가 덕성에 의해서 직각적으로(spontaneously)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허형에 따르면 덕성에 의해서 직각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이란 다음과 같다.

덕성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은 실천주체의 적극적인 행동이 저절로 절도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인위적 조치가 그 사이에 끼어들지 않는 것이다. 인욕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은 슬퍼해야 할 때에도 슬퍼하지 않고 고쳐야 할 것도 고치지 않는 것이다. 배우는 자는 덕성을 가리는 자의적은폐를 근절시킴과 아울러 덕성을 손상시키지 않기만 하면, 어떠한 일에 처해도 응당 그러해야 할 방식을 실현할 수 있다.<sup>41)</sup>

단순히 때와 추세를 추수(追隨)하는 것도 아니고 또 역으로 자신의 원칙만 고수하는 것도 아닌, 현실 상황에 따라 도덕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은 인간의 사적인 욕구(人欲)를 제거하는 것이다. 이러한 욕구를 제거시켜서 자신의 덕성이 그대로 드러날 때, 다시 말하여 마음의 노력에 의해 자신의 모든 정서가 본성화(心統性情)할 때 우리의 행동은 모든 상황에서 도덕원칙에 부합하게 된다. 그리고 덕성이 확립할 때 비로소 진정한 문장이자 형식이 나오게 된다.

어떤 이가 논하기를, 사람이 詩文을 지을 때 「시문」이 어디로부터 나와서 그렇게 「지어질 수」 있는 것인가라고 했다. 말씀하시기를, “性으로부터 나온다. 詩文은 다만 禮의 영역에서 운율이 있는 글일 뿐이다. 배열하여 章을 이루는데 마음의 明德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시문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일들은 「시처럼」 배열되어 질서를 이룬다. 크게는 군신·부자 사이의 질서이며 작게는 소금과 쌀 같은 세세한 것인데, 종합하여 文이라고 한다. 합당하고 적합한 것은 義라고 말하며, 일상에서 항상 실천될 수 있는 것은 道라고 한다. 文 義 道는 모두 하나이다.”<sup>42)</sup>

39) 三浦秀一, “許衡試論-金元之際における程朱學の受容者として”, 『日本中國學會報』第 49集, 東京: 日本中國學會, 1997. 142면.

40) “德性用事, 物欲不行, 能隨時變易, 以合于道.” (『遺書』卷2, 「語錄」下)

41) “德性用事, 則自然所施中節, 非有安排做造, 人欲用事, 則當哀而不哀, 當改而不改, 學者但當杜絕私弊, 無害德性, 則所處皆得其宜.” (『遺書』卷2, 「語錄」下)

42) “或論, 凡人爲詩文, 出於何而能若是. 曰, 出於性, 詩文只是禮部韻中字已. 能排得成章, 蓋心之明德使然也. 不獨詩文, 凡事排得著次第. 大而君臣父子, 小而鹽米細事, 總謂之文. 以其合宜, 又謂之義, 以其可以日用常行, 又謂之道. 文也, 義也, 道也, 只是一般.” (『魯齋遺書』「語錄上」)

이상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문장과는 기성의 문장적 형식을 통하여 천지의 조화를 간접적으로나마 체득할 수 있다는 기본적 입장을 갖고 있다. 이런 사유에 기반하여, 사람의 주체성을 문장적 형식이라는 체계 속으로 용해시켜 버림으로써 사회·문화적 안정성을 추구했던 것이 문장과의 목적이었다고 추론해 볼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사회·문화적 안정성을 얻는 대가로 인간의 주체성은 희생될 것이며, 더구나 문화적 형식 자체가 인간 능력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릴 경우(곧 詞賦를 위주로 삼는 과거 시험의 경우) 사람은 형식 그 자체에 매몰되게 되며 문장 기술만 익혀 과거시험에 합격하려는 私欲이 발달할 수도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점은 인간 스스로 天地의 道를 직접 체득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욕구들로 짜여 있는 사회가 아무리 안정적이라고 해도 그 사회는 도덕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주체성의 상실과 私欲 발달이라는 부정적 현실에 직면하여 이를 돌파할 수 있는 길은 小學적 수양이라고 허형은 생각했던 듯하다. 문장 형식으로 사람을 훈련시킬게 아니라, 실제 인간관계 속에서 따라야 할 절목을 가지고 사람의 외적 행동을 제어해야지 사람은 점차 자기 안에 있는 도덕적 본질을 직접 자각해 나갈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도덕적 본질을 자각해 나가는 사람은 다시 주체성을 갖게 되며 私欲 역시 극복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허형의 첫 번째 깨달음이다.

『讀易私言』을 저술할 당시의 깨달음을 생각해 본다면, 급변하는 정세를 올바르게 판단하여서 적합하게 행동하려면 德性を 온전히 해야 하며, 德性を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상 생활 속에서 자기 자신의 외면을 제어해 나감으로써 항상 경건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결국 허형의 두 번째 깨달음의 내용은, 급변하는 현실 속의 올바른 행동 역시 小學 공부에 달려있다는 점일 것이다. 그러나 小學 공부는 인간관계의 그물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임을 생각해 볼 때, 그 역할이행을 너무 강조할 경우 개인 간의 조화가 아니라 역할 속으로 매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 3. 許衡의 出處觀

원나라 정부는 끊임없이 허형을 국정에 참여시키려고 했다. 1254년과 1255년 두 차례에 걸쳐 허형에게 京兆提學직을 주려고 했지만 허형은 극구 사양하고 고향으로 돌아간다.<sup>43)</sup> 1260년 새로 즉위한 후빌라이한이 허형을 불렀으나 간단한 문답만 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다.<sup>44)</sup> 1261년, 후빌라이의 부름으로 다시 上都로 가서 국정 자문을 받았다. 이때 경제

43) “甲寅，王府徵教授京兆，避於大名，使者訪焉，遂偕往。乙卯廉公希憲宣撫關中，奏擬授先生京兆提學仍月俸，力辭不受往返，凡六七，不能強也。”(『考歲略』)

44) “庚申，上在正位宸極，應詔北行，至上都入見。問所學，曰，孔子。問所長，曰，虛名無實，誤達聖聽。問所



전문가였던 王文統이 中書省平章政事라는 중책을 맡아서 국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지만 허형의 오랜 친구인 竇默과 姚樞, 그리고 許衡 모두 王文統의 학문이 옳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王文統이 세 사람을 분열시키려고 太子의 스승직을 셋으로 나누어서 세 사람에게 내렸다. 허형의 주장에 따라 세 사람이 모두 관직을 받기를 거부하자 결국 姚樞에게는 大司農을, 두목에게는 翰林侍講學士를, 허형에게는 國子祭酒(國子祭酒)를 하사했지만, 허형만은 극구 사양하고 귀향했다.<sup>45)</sup> 1265년 다시 후빌라이한의 부름으로 수도에 갔다. 후빌라이는 승상 安童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허형이 그 자문역을 맡아달라고 부탁했고 허형은 간곡히 사양하다가 마지못해 받아들인다.<sup>46)</sup> 1266년 “時務五事”를 지어서 황제에게 올렸고 1267년에는 황제의 명령으로 官制를 정비한다. 1270년 中書左丞을 제수 받았지만 또 다시 극구 사양한다.<sup>47)</sup> 1270년 5월에는 당시 실권자인 서역인 阿哈瑪가 너무 많은 권력을 갖고 있다며 그를 비판하는 상주문을 올렸다.<sup>48)</sup> “王文統이 李단(王+瓊)의 반란에 연루되어 사형을 당한 후, 이어서 재정이라는 중요한 권력을 잡은 사람은 阿合馬였으니 그는 서역인이었다. 아합마는 새로운 재원을 찾는데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었다. 至元 三年(1266),

能, 曰, 勤力農務, 教授童蒙. 問科舉何如, 曰, 不能. 上曰, 卿言務實, 科舉虛誕, 朕所不取. 七月還燕.” (『考歲略』)

- 45) “辛酉三月, 應召至上都, 時王文統秉政, 深忌雪齋諸公. 先生素無因緣, 而無憚也. 及竇公力排其學術之非, 必至誤國. 文統始疑先生唱和其說. 五月授雪齋太子太師, 竇公太子太傅, 先生太子太保, 外佯尊之, 乃竇不欲備顧問也. 竇公, 既以言文統不中, 欲依春宮以避禍. 先生獨以爲不可, 曰, 姑舍其不安於義者, 且以一事言之, 如中古以來, 師傅與太子相見, 則就西位東向, 太子東位西向, 公能爲此事否. 不然, 是師道自我而廢也. 雪齋亦贊其說, 相與懷麻力辭於闕下. 凡數日始從其請, 由是改授雪齋大司農, 竇公翰林侍講學士, 先生國子祭酒. 既拜命以疾辭. 九月得告南還, 仍奉旨教授懷孟路子弟.” (『考歲略』)
- 46) “三年春二月, 召至檀州後山, 面奉德音, 竇漢卿獨言王以道當時, 汝何爲不言, 豈孔子教法使汝若是耶, 汝不遵孔子教法, 自若是耶. 往者不咎, 今後勿爾也. 是云是, 非云非, 可者行, 不可者勿行. 我今召汝, 無他, 省中事. 前雖命汝, 汝意猶未悉, 今面命汝, 人皆譽汝, 想有其實, 汝之名分, 其斟酌在我. 國家所以無失, 百姓所以得安, 其謀謨在汝. 謂汝年老, 未爲老, 謂汝年小, 不爲小, 正當黽勉從事, 無負汝平生所學. 安童尙幼, 若未更事, 汝謹輔導. 汝有嘉謨, 先告安童, 以達於我, 我將擇焉. 先生對曰, 聖人之道, 至大至遠, 而學者所得有淺深. 臣平生, 雖讀其書, 所得深淺. 然既 特命, 願罄所知者言之, 所不知者, 亦不能強也. 安童聰明, 且有執持, 告以古人言語, 悉能領解, 臣所知者, 盡告之. 但慮中有人間之, 則難行, 外用勢力納人其間, 則難行. 臣入省之日, 淺淺見如此, 未知是否.” (『考歲略』)
- 47) “七年正月拜中書左丞, 入見奏事畢, 辭於上前不久. 大槩以爲臣之所以不敢承受者有三, 一則臣一介書生, 遽當大任, 非勳非舊, 不足以服內外之人. 二則無德無才, 不能辦陛下責任之事. 三則臣之所學迂遠, 於陛下聖謀神算, 未盡融合. 陛下知臣未盡信, 臣未至直, 以虛名誤蒙採擢, 臣若不自度, 冒當聖眷, 其旋至悔咎, 必矣. 上曰, 此事, 皆出朕意, 無復多讓. 先生再三懇請. 上命左右掖出, 左右掖之, 曰有旨. 令先生出矣. 將至門, 復還奏曰, 陛下令臣出, 當自出省去耶. 上曰, 出殿門爾. 爾後連日求辭, 不免.” (『考歲略』)
- 48) “夏五月, 先生隨省赴上都, 因具奏阿哈瑪特專權無上, 國害民等事, 渠由是銜之. 或曰, 先生夜寢疎闊, 無他防備, 卒由橫逆, 奈何. 先生曰, 主上在此, 何得敢爾脫, 或有之, 亦命也. 人生不應有如許計較.” (『考歲略』)

宋의 三司計省제도를 본따서 ‘制國用使司’를 세웠다. 아울러 아합마를 그 책임자로 삼았고, 中書右丞 張易과 함께 制國用使司일을 맡아보게 했으며 參知政事 張惠는 制國用副使로 삼았다. 至元 七年(1270), 制國用使司를 없애고 다시 尙書省을 세워서 安童이 이끌던 中書省에 필적하게끔 만들었다. 尙書省이 만들어진 동기는, 군사경비가 너무 많이 소모되어서 국고수입을 속히 늘리려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서역의 회교도들이 한족과 권력을 다투면서 점차 중서성의 속박을 벗어나고자 했던 한 표현이기도 했다. 이에 이르러 국가의 재정과 中書省의 관계는 끊어졌다.”<sup>49)</sup> 이러한 이유로 허형은 아합마를 극도로 비판했던 것이다.

1271년 8월에는 集賢大學士兼國子祭酒직을 하사 받았는데 이 번 만큼은 매우 흔쾌히 받아들이고서 몽고인 귀족 자제들의 교육사업에 헌신하게 된다. 1276년에는 기존 역법을 고치라는 황제의 명령을 받고서 1280년 ‘授時歷’을 만들었다.

이상 간략히 살펴본 바와 같이 허형이 흔쾌히 받아들인 관직은 교육사업에 관계된 것뿐이고, 나머지 관직은 모두 거절하거나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 때문에 허형이 원나라 정부에 극히 비협조적이었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지만, 기실 그는 원나라의 국정에 끊임없이 참여했다. 일정한 관직을 받지는 않았지만 수시로 황제의 부름에 응하여 원나라의 國事를 논했던 것이다. 정규적인 관료 제도에 편입되지는 않되 國事에는 참여를 하는 매우 독특한 出仕의 양식을 보여준다. 또한 관료제도 정비, 학교 설립, 授時曆 작성이라는 국가적 프로젝트 역시 허형은 성실히 수행했는데, 이렇게 제도적·기술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기꺼이 원나라 정부에 협력할 수 있다는 태도를 가졌던 듯하다.

요약하자면 허형은 기존 관료 제도에 아예 편입되기를 거부하되 수시로 원나라 황제의 자문에 응했으며, 관료제도 정비나 역법 작성 같은 기술적 분야와 교육 분야에서는 오히려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허형의 出仕 원칙은 어디까지나 ‘隨時變易’이라는 자신의 기본적 원칙에 입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다만 허형 일 개인에게 국한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을 일원적 지배체제로 편입시키려는 국가권력의 속성과, 지역과 혈족의 관계를 기반으로 국가권력으로부터 상대적 자율성을 견지하면서, 권력의 속성을 자신의 이념에 따라 순치시키려는 유가적 지식인 사이의 전통적 갈등을 생각해 볼 때, 허형이 보여주었던 출사의 원칙은 하나의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4. 나오며

이상 논의했던 바를 간단하게 요약하고자 한다. 허형은 유년시절 경전암송·작문 공부

49) 王民信, 앞의 책, 34-35면.

보다 경전의 근본 의미를 알고자 하는 욕구를 가졌다. 그러나 전란 와중에 생계를 위한 공부를 해야 했고, 허형의 부모가 권유한 길은 말단관리가 되는 것과 점술을 공부하는 것이었다. 그는 관료체제에 완전히 편입되기를 거부하는 한편, 사회에서 물러나 사회를 관조하는 점술 공부에도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① 詞賦공부를 대체할 공부방법의 탐구 ② 시세판단과 적합한 대처라는 두 가지 문제의식은 여전히 남았을 것이다.

허형은 『尙書疏義』 발건을 계기로 고대의 유가 경전에 깊은 흥미를 갖고서 그 경전을 사상·행동의 길잡이로 삼고자 했다. 금나라가 몽고에 의해 점령당한 후, 허형은 요추를 통하여 주자학을 접하게 되는데 특히 『小學』에 주목을 한다. 당시 원나라 과거시험의 주류를 이루었던 詞賦 시험과 그 시험을 위해서 해야 했던 경전암송·작문 공부는 허형이 진작부터 회의를 품었던 대상이었다. 전통적·사회적 문장형식 속으로 사람의 주체성을 용해시켜 버림으로써 사회·문화적 안정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문장과의 이상이었겠지만, 그 대가로 인간의 주체성은 희생되며, 더구나 문장적 형식 자체가 인간 능력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릴 경우(곧 詞賦를 위주로 삼는 과거 시험의 경우) 사람은 형식 그 자체에 매몰되게 되며 문장 기술만 익혀 과거시험에 합격하려는 私欲이 발달할 수도 있다. 주체성의 상실과 私欲 발달이라는 부정적 현실에 직면하여 이를 돌파할 수 있는 길은 小學적 수양이라고 허형은 생각했다. 문장적 형식으로 사람을 훈련시킬게 아니라, 실제 인간관계 속에서 따라야 할 절목을 가지고 사람의 외적 행동을 제어해야지 사람은 점차 자기 안에 있는 도덕적 본질을 직접 자각해 나갈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도덕적 본질을 자각해 나가는 사람은 다시 주체성을 갖게 되며 私欲 역시 극복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주체성을 다시 자각한 사람은 국가체제에 일방적으로 편입되지 않으면서 자신의 이념에 따라 국가 이념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이다.

주자학을 접한 지 7년 후 허형은 독학 끝에 주자학을 깨닫게 되며 그 해 『讀易私言』을 저술한다. 이 깨달음은, 젊었을 때 자신이 가졌던 문제의식인 시세판단과 적합한 대처에 대한 대답이 되었을 것이다. 곧, 일상적 사회생활에서 자기 외면을 제어하는 경건한 태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행동하는 것, 다시 말하여 小學의인 敬의 수양을 행하는 것이 곧 ‘隨時變易’이다. 왜냐하면 특정 상황 속에서 敬의 수양을 한다는 것은 주의 깊은 태도로써 상황 속의 도덕적 의미를 파악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小學 공부는 인간관계의 그물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임을 생각해 볼 때, 그 역할이행을 너무 강조할 경우 개인 간의 조화가 아니라 역할 속으로 매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점은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겨 놓기로 한다.

## 참고문헌

- 曹植, 『南冥集四種』, 진주: 남명학연구원, 2000.
- 許衡, 『魯齋遺書』, 京印文淵閣四庫全書 集部 137, 臺北: 臺灣商武印書館, 1983.
- 許衡, 『魯齋全書』(和刻本), 中國思想叢書 29, 서울: 중앙도서, 1988.
- 黃宗羲, 『宋元學案』, 臺北: 河洛圖書出版社, 1975.
- 홍원식 편, 『元代性理學』, 서울: 포은사상연구원, 1983.
- 孫克寬, 『寒原道論』, 臺北: 聯經出版事業公司, 民國66 [1977].
- 王民信, 「許衡」, 『中國歷代思想家(32)』,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78(2판).
- 陳正夫·何植靖, 『許衡評傳』, 南京: 南京大學出版社, 1995.
- 三浦秀一 著, 『中國心學の稜線 - 元朝の知識人と儒佛道三教』, 東京: 研文出版, 2003.
- 山田慶兒, 『授時曆の道-中國中世の科學と國家』, 東京: みすず書房, 1980.
- 安部健夫[Abe Takeo], 「元代知識人と過去」, 『元代史の研究』, 東京: 創文社, 1972.
- 秋月胤鷄[Akizuki Kazutsugu], 『元明時代の儒教』, 東京: 甲子社書房, 昭和3[1928]
- Hok-lam Chan & Wm. Theodore de Bary ed., *Yüan Thought*,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2
- Wm. Theodore de Bary, *Neo-Confucian Orthodoxy and the Learning of the Mind-and-Heart*, New-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1.
- 金浩東, 「蒙古帝國의 形成과 展開」, 『강좌중국사III』, 서울: 지식산업사, 1994.
- 吉川幸次郎[Yoshikawa Kojiro], 「朱子學北傳前史 - 金末と朱子學」, 『吉川幸次郎全集』(2), 東京: 筑摩書房, 1968~1987.
- 島田虔次, “宋學の展開”, 『中國思想史の研究』, 京都: 京都大學出版部, 2002.
- 福田 殖, 「吳澄-朱陸調和にすすんだ元朝最大の儒者」, 『中國思想史(下)』(日原利國 編), 東京: ぺりかん, 1988.
- 森田憲可, 「元代漢人知識人研究の課題二三」, 『中國-社會と文化』 제5호, 東京: 東大中國學會, 1990. 6.
- 三浦秀一, 「許衡試論-金元の際における程朱學の受容者として」, 『日本中國學會報』 第 49 集, 東京: 日本中國學會, 1997.

- 石田和夫, 「劉因について」, 『福岡大學總合研究所報』79, 福岡: 福岡大學總合研究所, 1984
- 杉山正明, 「モンゴル時代史研究の現状と課題」, 『宋元時代史の基本問題』, 東京: 汲古書院, 1996.
- 盧鐘鋒, 「元代理學與『宋史·道學傳』的學術史特色」, 『宋遼金元史』, 北京: 中國人民大學書報資料社, 1985. 5.
- 唐宇元, 「論許衡的哲學思想在中國哲學思想的地位」, 『哲學研究』, 1982.
- 駱承烈, 「元初普及儒學的先驅」, 『中國哲學史』, 北京: 中國人民大學書報資料社, 1998. 6.
- 馬蘭察夫, 「蒙古族哲學思想史研究之再認識」, 『中國哲學史』, 北京: 中國人民大學書報資料社, 1985. 8.
- 馬瑞江, 「夢元文化變移中心的形成」, 『宋遼金元史』, 北京: 中國人民大學書報資料社, 1994. 4.
- 武國驥, 「試論『蒙古秘史』中的騰格理哲學範疇」, 『中國哲學史』, 北京: 中國人民大學書報資料社, 1985. 11.
- 白鋼, 「許衡與傳統文化在元代的運命」, 『元仕論叢』5, 元史研究會 編, 北京: 中華書局, 1993.
- 白萬柱·阿拉坦昌, 「試論成吉思汗的倫理思想」, 『宋遼金元史』, 北京: 中國人民大學書報資料社, 1990, 5.
- 師道剛, 「金元之際儒學與全真教的關係」, 『宋遼金元史』, 北京: 中國人民大學書報資料社, 1993. 1.
- 余英時, 「中國知識人の史的考察」, 『中國-社會と文化』 第5号, 東京: 東大中國學會, 1990. 6.
- 吳志根, 「元初北方理學的傳播者趙復」, 『中國哲學史』, 北京: 中國人民大學書報資料社, 1985.
- 王風雷, 「元代的國子祭酒考」, 『宋遼金元史』, 北京: 中國人民大學書報資料社, 1993. 5.
- 姚大力, 「金末元初理學在北方的傳播」, 『元史論叢』 第2集, 元史研究會 編, 北京: 中華書局, 1983.
- 袁國藩, 「金元之際江北之人民生活」, 『大陸雜誌』 30-36, 1964.
- 魏崇武, 「金元之際北方儒學的繼承和發展」, 『中國哲學史』, 北京: 中國人民大學書報資料社, 1996. 7.
- 魏崇武, 「趙復理學活動述考」, 『中國哲學史』, 北京: 中國人民大學書報資料社, 1985. 8.
- 張林, 「耶律楚材與元初儒學的興盛」, 『中國哲學史』, 北京: 中國人民大學書報資料社, 1995. 10.
- 田浩, 「金代的儒教」, 『中國哲學』, 北京: 人民出版社, 1988.
- 程作新, 「蒙古族學者博明的唯物主義思想」, 『中國哲學史』, 北京: 中國人民大學書報資料社,

1992. 7.

周良霄,「程朱理學在南宋金元時期的傳播及其統治地位的確立」,『文史』37,北京:中央書局,1993.

周良霄,「趙復小考」,『元仕論叢』5,元史研究會編,北京:中華書局,1993.

周曉光,「宋元之交與元代的新安理學」,『中國哲學史』,北京:中國人民大學書報資料史,1991. 12.

陳德芝,「論宋元之際江南士人的思想和政治動向」,『宋遼金元史』,北京:中國人民大學書報資料社,1997. 3.

陳正夫,「論許衡的自然觀及其折衷朱陸傾向」,『中國哲學史』,北京:中國人民大學書報資料史,1993. 12.

蔡方鹿,「元代經學國際研討會綜述」,『中國哲學史』,北京:中國人民大學書報資料史,1996. 6.

湯曉方,「論元朝文化的歷史地位」,『宋遼金元史』,北京:中國人民大學書報資料社,1985. 5.

韓志遠,「關於元代社會風向的幾個問題」,『宋遼金元史』,北京:中國人民大學書報資料社,1991. 4.